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하지(Hajj) 순례를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MONTHLY **KOFA**

코파의

칭찬

Ruko Pinangsia Block B No.25, Tangerang, Jl. Boulevard Jend. Sudirman, RT.001/RW.009,
Panunggan Bar.,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15138, Indonesia
Tel. 0856 9113 2325,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Vol. **140**
2026/05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에너지 위기 속 태양광 수요 급증... 인니 전력망 대비 부족



▲족자카르타 구농 가들의 한 주민 집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에너지 시장 불안이 재생에너지 수요를 자극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전력망 한계로 태양광 확대는 제약을 받고 있다.

1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자카르타 소재 재생에너지 개발사 따라 바스까라 아에비따스(Tara Bhaskara Aevitas)의 노르만 박피아르 재생에너지 부문 책임자는 16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전쟁 발발 이후 태양광 프로젝트 5건을 새로 수주했다”고 밝혔다.

특히 디젤 발전 대신 오프그리드(Off-grid) 태양광 발전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처음으로 발생했는데, 이는 국가 전력망에 연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이다.

오프그리드 태양광은 배터리 저장장치가 필수적이어서 비용이 높고, 전력 단가가 국영 전력회사보다 3~4배 비쌀 수 있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태양광을 국영 전력

회사 PLN의 전력망과 연계하는 온그리드(On-grid) 방식이 활용된다.

온그리드의 문제는 전력망 수용 능력이다. 태양광 발전은 날씨에 따라 출력이 급변하는 간헐성 특성이 있어, 무분별한 확대 시 전력 수급 불균형과 대규모 정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PLN의 계통 운영 능력을 고려해 신규 태양광 설비 용량에 할당량(quota)을 설정하고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2026년 옥상형 태양광 설비 설치 할당량을 484MW로 정했으나, 인도네시아태양광협회(AESI)에 따르면 대기 물량만 200MW에 달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설치 승인 시점을 고객에게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다른 태양광 기업 쉐르야(Xurya)는 전쟁에 따른 수요 급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2020년 이후 이어진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기 물량이 200MW인 상황은 10년 전 수요 부족으로 시장이 성장하지 못했던 상황과는 대조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양광 설비 핵심 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기반도 취약한 상태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브라보워 수비안포 대통령은 전쟁 발발 직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100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정책 실행력은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 에너지 싱크탱크 필수서비스개혁연구소(IESR)의 파비 뿌미와 소장은 16일 “대통령 발언은 타당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규제 기반조차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위기는 에너지 전환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2025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5.75%로 전년 대비 1.1%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여전히 석탄과 가스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파비 소장은 태양광 확대에 따른 계통 불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배터리 설치 의무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또한 PLN의 전력망 수용 능력에 대한 정보 공개와 함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유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니 이민국, 브카시 공사현장서 외국인 78명 적발... 불법 취업 조사



▲2026년 4월 8일, 서부자바 브카시 짜까랑 델타마스에 위치한 그린랜드 국제 산업센터 건설 현장에서 '위라 와스빠다 작전' 중 적발된 외국인 노동자 78명을 브카시 이민국 직원(왼쪽)이 안내하고 있다. (사진=자카르타포스트/브카시 이민국)

서부자바 브카시 이민국은 불법 취업 혐의로 외국인 78명을 조사 중이라고 17일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서부자바 이민국에 따르면, 이들은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 '위라 와스빠다(Wira Waspada)' 단속 작전에서 적발됐다. 브카시 델타마스 지역의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이들로, 단속 당시 여권이나 체류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외국인은 중국인 76명, 말레이시아인 1명, 베트남인 1명이다. 이들은 현재 브카시 이민국으로 이송돼 신원 확인과 함께 체류 자격과 실제 활동의 일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초기 조사 결과 중국인 7명은 임시체류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중국인 69명과 베트남인은 방문체류허가증을 소지했고, 말레이시아인은 관광 목적의 무비자 체류허가증을 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델타마스 그린랜드 국제 산업센터(GIIC) 내 데이터센터와 기숙사,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국은 체류 자격과 다른 활동을 한 경우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이민국은 서류가 적법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반환 후 활동을 허용하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총 346명으로, 중국인이 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파키스탄(21명), 나이지리아(20명), 일본(13명), 싱가포르, 한국, 인도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포함됐다.

당국은 체류 허가 오남용, 거주지 변경 미신고, 불법 체류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으며, 향후 외국인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HKI
PT. HANJIN
KONSTRUKSI INDONESIA

HIJ
PT. 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https://hanjin.co.id/>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https://hanjin.co.id/>

인니 비보조 연료 가격 급등...물가 압력 확대 우려



▲쁘르따미나 주유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국영에너지기업 뿌르따미나(Pertamina)가 중동 지역 봉쇄와 경제 제재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자 비보조 연료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회사에 따르면 18일부터 자카르타 기준 뿌르따맥스 터보(ROX 98) 가격은 리터당 13,100루피아에서 19,400루피아로 올랐다. 디젤 제품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해 텍스리프(Dexlite)는 14,200루피아에서 23,600루피아로, 뿌르따미나 텍스(Pertamina Dex)는 14,500루피아에서 23,900루피아로 각각 인상됐다. 반면 보조금이 적용되는 뿌르

따리프(Pertalite)와 바이오솔라(Biosolar)는 각각 10,000루피아, 6,800루피아로 유지됐고, 뿌르따맥스92(Pertamax, RON 92)와 뿌르따맥스 그린(Pertamax Green)도 각각 12,300루피아, 12,900루피아로 동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상이 경제 전반에 파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법연구센터(CELIOS) 비마유디스티라 소장은 1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특히 뿌르따미나 텍스 가격이 약 65% 급등한 점을 지적하며 "중장비와 산업 기계에도 사용되는 연료인 만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

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연료로 이동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급 안정 유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제 유가는 현재 배럴당 90달러 안팎으로 정부 예산 가정치 70달러를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해상 교통이 사실상 중단되고 걸프 지역 석유·가스 시설이 피해를 입으면서 공급 차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시프트연구소 뿌뜨라 아디구나 대표는 이번 가격 인상이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연료에 국한된 만큼 상징적 성격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분쟁 초기 호르무즈를 출발한 유조선이 도착하기 시작하면 실제 공급 부족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현재 세계 원유 공급은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개혁센터(CORE) 모하마드 파이살 소장은 연료 보조금이 결국 정부 부담이지만 초기 비용은 뿌르따미나가 떠안는 구조라며 "구매력이 높은 계층이 사용하는 고급 연료 가격을 조정해 부담을 분산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동 정세도 긴장을 더하고 있다. 이란은 미 해군 봉쇄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재개했으며, 미국은 이란 항만 봉쇄를 유지해 20척 이상의 선박이 회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시적 개방 기간 일부 유조선이 통과했지만 이후 대부분 철수했으며,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유조선에 발포하고 크루즈선을 위협했다는 보고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란 외무차관 사이드 카티브자데는 미국의 봉쇄가 휴전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뿌르따미나의 해운 및 물류 자회사 뿌르따미나 인터내셔널 쉬핑(PIS)은 자사 선박 뿌르따미나 프라이드와 감수노로가 해협 통과가 막혀 아라비아만에 발이 묶어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관계 당국과 협력해 안전 항로 확보를 준비 중이며 승무원과 화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 이본느 므웁강은 테헤란 주재 대사관 등과 협력해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선박 운항 재개를

위해 기술적·운영상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 해상에 묶여 있는 러시아산 원유의 합법적 구매를 허용하는 제재 예외 조치를 5월 16일까지 연장했다. 이는 이란 전쟁 여파로 경제적 충격을 겪는 아시아 국가들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협상 진전에 따라 원유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인상됐다. 뿌르따미나는 비보조 LPG 12kg가격을 기존 19만2천루피아에서 22만8천루피아로 18.75%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2023년 이후 첫 가격 조정이다. 해당 가격은 자카르타와 반둥, 서부·중부·동부 자바, 족자카르타, 발리, 서누사 가라 등에 적용되며, 기타 지역은 유통 비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또한 비보조 LPG 5.5kg 가격도 같은 지역에서 9만 루피아에서 10만7천루피아로 18.89% 인상됐다. 앞서 뿌르따미나는 2023년 국제 유가 지표인 아랍코 계약가격(CPA) 하락과 루피아 강세를 반영해 12kg LPG 가격을 19만2천루피아로 인하한 바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미-인도네시아, '주요 국방 협력 파트너십' 격상... 대중국 포위망 핵심 포섭



▲©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 X 캡처

미국이 동남아시아의 맹주 인도네시아와의 군사적 결속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인도-태평양 전략의 결정적 고리를 완성했

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샤프리 삼수딘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주요 국방 협력 파트너십(Major Defense Cooperation Partnership)'으로 격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자신의 X를 통해 "오늘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샤프리 삼수딘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맞이하게 되어 영광이었다. 양국 국방 관계의 저력

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관계를 '주요 국방 협력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격상은 미국이 비동맹국에 부여하는 가장 전략적인 지위 중 하나로, 향후 인도네시아에 대한 첨단 무기 체계 수출과 민감 기술 이전이 획기적으로 유연해질 전망이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연합 군사훈련의 규모를 확대하고 해양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세계

물동량의 절반인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의 주요 길목을 점유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해상 진출을 차단할 '남방 저지선'의 핵심 퍼즐을 맞춘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나투나 제도 등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어온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강력한 뒷배를 얻음으로써, 남중국해 내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출처:프리진경제



PT ALJIUM GREEN NUSA

정직하고 품질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겠습니다!

— LS-AG Cable Indonesia 공식 대리점 —



LV 케이블/Building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Overhead 케이블



Busduct

HEAD OFFICE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 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한국인 상담)
0811 8430 561

LS-AG Cable Indonesia
www.lscns.com
www.lta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021 3973 3988

OFFICIAL DISTRIBUTOR | 공식 대리점
PT ALJIUM GREEN NUSA

중동 긴장 속 인도네시아, 2026 하지 순례 강행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카바신전. [위키피디아 갈무리]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하지(Hajj) 순례를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 4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하지 관리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공식적인 입국 금지 조치가 없는 한, 안전 지침을 강화하여 순례를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올해 하지 순례는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순례단의 첫 번째 그룹은 4월 22일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출국한다.

◆ 22만 1천 명의 순례 대장정 이번에 배정된 인도네시아 하지 순례객은 총 22만 1천 명이다. 순례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룹은 주부(약 5만 2천 명)이며, 민간 부문 종사자(약 4만 6천 명)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1~64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65세 이상의 고령 순례자도 4만 명을 넘어섰다. 14년의 기다림 끝에 이번 순례길에 오르는 뿌라미따 구만띠(39세) 씨는 “중동 정세를 인지하고 있지만, 오랜 소망인 하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기획이 왔을 때 잡아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녀는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특별한 대피 지침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 정부, 안전 최우선 강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중동의 긴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순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르판 유승 종교부 장관은 15일 “성지순례 진행을 위한 준비는 99% 완료된 상태”라며, “안전 조치를 엄격히 준수하며 순례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시민보호국 역시 분쟁 지역을 우회하는 안전 항로를 설정하도록 항공사들에 당부했다. 운영 지원도 본격화됐다. 하지 업

무를 담당하는 다흐닐 안자르 시만준택 종교부 차관은 순례객 지원 임무를 수행할 운영 요원 363명을 이미 제다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 고유가로 인한 비용 상승 부담
한편, 항공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항공료 인상이 순례 비용의 변수로 떠올랐다. 종교부는 올해 하지 순례 전체 운송비가 약 1조 7천억 루피아(약 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순례자 1인당 약 5,400만 루피어를 개인이 부담하며, 하지기금관리청(BPKH)이 하지기금 운영수익을 통해 약 3,300만 루피어를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순례지인 메카에 호텔 177개, 메디나에 100개를 확보하고, 두 도시에 간이 식당 총 51개와 진료소 총 45개를 준비했다. 또한 메카와 메디나 간 교통편과 귀국 항공편도 준비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건기 더 길고 건조해진다” ... 인니, 엘니뇨 대응 강화

엘니뇨 재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산불 대응과 식량 안보 대책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상청(BMKG)은 태평양 해수면 온도 변화를 모니터링한 결과, 올해 중반 약 83% 확률로 약~중간 강도의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엘니뇨는 일반적으로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를 초래해 건기를 길게 만들고 가뭄을 심화시키는 기후 현상이다. 실제로 2023~2024년 엘니뇨 당시 쌀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상승한 바 있다. 기상청의 기후학 부국장 아르다세나 소빠헬루와간은 10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엘니뇨 현상이 강해질수록 강수량이 더 크게 줄어든다”며, 올해는 자연적 기후 변동성으로 인해 건기가 더 길고 건조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4~6월 건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건기 절정은



▲서부 자바 브카시 맘분 지역의 논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8월로 예상된다. 국가연구혁신청(BRIN)은 한층 강한 엘니뇨 가능성을 제기하며, 4~10월 사이 ‘고질라급’ 강도의 엘니뇨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부 자바의 주요 쌀 생산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 수마뜨라와 칼리만탄에서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산불 위험 증가가 우려된다. 산림부에 따르면 2026년 1~3월 동안 최소 4만2천헥타르(축구장 약 6만 개 규모)의 산림 및 토지가 화재로 소실됐다. 주요 화재 발생 지역은 리아우, 서부와 중부 칼리만탄, 동누사 가라 등이다. 환경부 장관 라자 쥘리 안토니는 지난 6일, “올해 가뭄은 더 일찍 시작되고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산불과 토지 화재는 지난해보다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부, 기상청, 국가재난방지청(BNPF)은 인공강우, 이탄지 채취, 공중 살수 등 대응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들은 농업이 물 의존도가 높은 구조여서 장기 가뭄 시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벼와 옥수수는 대표적인 물 집약 작물로, 수자원이 부족하면 생육이 저해되고 수확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개 등 수자원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니 인구 2억9천만명 육박...자바 집중 · 청년층 두터워

인도네시아 인구가 2025년 말 기준 2억8,830만 명을 넘어서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자바섬에 인구가 절반 이상 집중된 가운데, 20~30대를 중심으로 한 생산연령층 비중이 여전히 두터운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 인구·시민등록국(Dukcapil)은 12일 ‘2025년 하반기 인구 데이터’를 통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총인구가 2억 8,831만5,899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해 6월 말 대비 약 160만 명 증가한 수치다. 전자 주민등록증(e-KTP) 보급도 확대됐다. 전체 인구 가운데 약 2억1,100만 명이 e-KTP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97.47%에 해



▲2026 인도네시아 인구구조 [위키피디아]

당하는 약 2억640만 명이 생체 정보 등록까지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 데이터 기반의 인구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지역별로는 자바섬에 전체 인구의 55.8%가 집중돼 수도권과 주요 산업이 밀집된 구조가 그대로

반영됐다. 수마뜨라는 21.8%, 술라웨시 7.35%, 칼리만탄 6.1%, 발리·누사팅가라 5.55%, 파푸아 2.01%, 말루쿠 1.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자바섬을 제외한 주(州) 단위에서는 북수마뜨라가 약 1,57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아체가 약 570만 명 수준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10~30대 인구가 각각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했다. 0~14세 유소년층도 각각 2,100만~2,200만 명 규모를 유지하며 인구 저변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를 보였다. [데일리인도네시아]




2026년 “에이스 에너지” 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사업에 본격 투자합니다.

We are Korea's No. 1 Solar Power Development & EPC, O&M Company in Indonesia.

PT. ACE ENERGY SERVICE는 인도네시아 No. 1 Developmet & EPC, O&M 태양광 전문회사입니다.

2026년부터 ACE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합니다. “ACE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전문 기업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선도 투자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합니다.”



ACE의 핵심 투자사업 영역

ACE는 다음과 같은 미래 지향적 사업 분야에 집중합니다.

- 산업형 태양광 솔루션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Non-CAPEX 솔루션 제안)
- OFF_GRID/IPP/PPP사업 투자/개발
- WTE, HYDROPOWER, 전기차 충전소
- 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와 연계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초기 자본 지출 부담, ACE가 없애드립니다!

ACE는 고객의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한 초기 자본 지출(CAPEX)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혁신적인 비(非)CAPEX 금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투자 부담 없이 실제 RE100과 NET ZERO에 도전하세요.

- 즉각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
- 종합적인 관리 서비스를 통한 장기적인 최적 효과를 보장
- ESG,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목표 달성

성공적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 PT ACE ENERGY SERVICE에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연락처 : Mr. Steve Youn : 0812 9730 5553 / steveyoun.indo@gmail.com

Mr. Kang Sung Won : 0811 1055 5610 / ksw97711@naver.com

미래를 여는 에너지, ACE와 함께 만드세요!

PT. ACE ENERGY SERVICE

인도네시아 No. 1 Financing - EPC - O&M 태양광 전문회사

롯데케미칼 타이탄, '호르무즈 봉쇄' 정면 돌파... 인도네시아 계열사에 원료 긴급 수급

PT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에 310억 원 규모 나프타 매각... 중동 전쟁발 공급망 위기 관리



▲롯데케미칼타이탄은 인도네시아 계열사인 PT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LCI)에 대규모 나프타 물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롯데케미칼

이란 전쟁에 따른 해상 물류 마비 속 그룹 내 자원 효율화 및 운영 리스크 최소화 총력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전 세계 석유화학 공급망을 위협하는 가운데, 롯데케미칼의 말레이시아 법인인 롯데케미칼타이탄(LC Titan)이 선제적인 자원 최적화 조치에 나섰다. 중동발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계열사 간 원료 매각을 통해 물류 마비 리스크를 분산하고, 그룹 전체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20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경제 매체 디 엣지(The Edge)에 따르면, 롯데케미칼타이탄은 인도네시아 계열사인 PT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LCI)에 대규모 나프타 물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1억 400만 링깃 규모 '나프타 할맹' ... 중동 의존도 낮추기 이번 거래는 이란 전쟁 여파

로 중동 산유국으로부터의 원료 도입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이뤄진 '그룹 내 자원 전용' 사례다. 롯데케미칼타이탄은 약 1억 400만 링깃(약 310억 원) 상당의 나프타를 LCI에 매각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나프타 유통량의 핵심 통로다. 전쟁으로 인해 이 경로가 봉쇄되거나 운송료가 폭등하자, 상대적으로 재고 여유가 있는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물량을 돌려 생산 차질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원료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시기에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외부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쇄하고, 그룹 내 전체 재고를 전략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비용 구조를 개선했다. 롯데케미칼의 '동남아 통합 밸트' 시너지 가속화 이번 조치는 롯데케미칼이 공

들여 온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통합 생산 네트워크의 강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말레이시아의 타이탄과 인도네시아의 LCI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중동발 물류 대란 속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원료 수급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 조성 사업인 '라인 프로젝트'의 가동을 앞두고, 원료 수급 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최적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외부 시장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원료를 구하는 대신, 그룹 내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실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위기 관리 경영'의 본보기다. **한국 석유화학 업계에 주는 시사점** 중동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해외 생산 거점 간의 유연한 원료 스와프(Swap)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아시아 내륙 등 다양한 경로의 원료 조달처를 확보하고, 계열사 간 통합 구매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란 전쟁과 같은 돌발 변수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공급망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원료 흐름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물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글로벌이코노믹

인도네시아, 이달부터 러시아산 원유 1억5천만 배럴 수입



▲지난 4월 13일 정상회담 한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왼쪽)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인도네시아가 러시아로부터 원유 1억5천만 배럴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24일 안타라통신이 보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친동생인 하심 조요하디쿠스모 에너지·환경 특사는 전날 열린 '2026 경제 브리핑'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도네시아가 이르면 이달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시작할 전망이다. 중동 전쟁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 광물장관은 17일 자카르타에서 "이번 계획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13일 프라보워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이후 양국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포함한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원유 조달선을 다변화하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

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수입처를 넓혀 국내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원유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정학적 충돌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과거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Saudi Aramco 시설이 공격받았을 때처럼 특정 산유국의 생산 차질이 전 세계 원유 유통과 가격에 연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바흐릴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국내 석유제품과 LPG 공급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라고 강조하면서도, 정부는 국영 에너지회사 빠르따미나 등과 함께 대체 공급처 확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달부터 차량당 하루 50리터(L)로 연료 판매량을 제한했다. 또 보건과 안보 등 필수 부서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매주 금요일 재택근무를 하고 공용 차량 이용 빈도는 절반으로 줄였다. [데일리인도네시아]



한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100년 무충전’ 시대 열린다... 러시아, 그램당 540만 원 ‘꿈의 배터리’ 양산 박차

반도체와 결합한 ‘베타볼타’ 2028년 상용화... 3D 적층 설계로 출력 10배 ↑ 삼성·LG ‘이차전지’ 한계 넘는 ‘자가발전 칩’ 등장... 첨단산업 판도 흔들다

한 번 설치하면 충전이나 교체 없이 100년 동안 전력을 공급하는 ‘영구 전지’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러시아 과학계가 반감기 100년에 달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한 핵전지(베타볼타) 대량 생산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기존 화학 배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에너지 혁명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배터리 시장의 지형 변화가 예고됐다.

지난 14일(현지시각) 베트남 매체 젠크(GenK)와 국제 핵저널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원자력공사(Rosatom) 산하 연구소와 모스크바 국립과학기술대학교(NUST MISIS) 등 러시아 과학자 연합은 최근 니켈-63(Ni-63) 기반 핵전지 산업화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들은 오는 2028~2029년 사이 해당 전지의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니켈-63’의 마법... 삼성·LG 이차전지 10배 압도하는 밀도
이번 기술의 핵심은 방사성 동위원소인 ‘니켈-63’이 붕괴하며 방출하는 전자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베타-볼타(Betavoltaic)’ 방식이다. 이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는 차원이 다른 물리적 특성을 지닌다. 우선 독보적 수명과 내구성이 있다. 니켈-63의 반감기는 약 100년이다. 설치 시 최소 50년에서 최대 1세기 동안 별도 충전 없이 전력을 공급한다. 또한, 영하 100도(°C)에서 영상 150도(°C)에 이르는 극한



▲한 번 설치하면 충전이나 교체 없이 100년 동안 전력을 공급하는 ‘영구 전지’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지=제미니3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다. 압도적 에너지 밀도도 핵심적 특성이다. 2016년 프로토타입 기준 1g당 약 3,300밀리와트시(mWh)의 효율을 기록했다. 이는 삼성SD나 LG에너지솔루션이 주력하는 하이니켈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러시아 연구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D 낸드(NAND) 공정에서 사용하는 적층 기술과 유사한 ‘3D 미세 채널 구조’를 도입했다. 동위원소를 미세한 채널 내부에 배치해 방사선 변환 면적을 14배 넓혔으며, 장치 크기는 3분의 1로 줄이면서도 출력은 10배 이상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램당 590만 원 ‘비싼 몸값’... “배터리 넘어 반도체 경쟁”**

혁신적인 성능에도 상용화의 최대 걸림돌은 원료값이다. 2026년 초 기준 니켈-63 1g의 가격은 약 4,000달러(한화 약 590만 원)에 육박한다. 고도의 원심분리기 시스템을 통한 농축 공정이 필수적인데, 현재 이 기술과 원료 공급망을 온전히 틀어쥔 국가는 러시아가 유일하다. 모스크바 국립 원자력연구대학교(MEPHI)의 예브게니스테핀 센터장은 “항공 우주용 소형 에너지원 확보는 국가적 최우선 과제”라며 “로사톰의 전문 핵 센터를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직접적인 위협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핵전지는 단순한 배터리를 넘어 ‘전원을 스스로 만드는 반도체

소자’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만약 반도체 칩 안에 이 초소형 전지를 내장할 수 있다면, 외부 전원 연결이 필요 없는 ‘자가발전 반도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탄생하게 된다. **의료부터 국방까지...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지정학적 변수**
응용 영역은 크게 세 갈래다. 우주·국방 분야에서는 태양광 확보가 불가능한 심우주 탐사선의 전력 문제를 해결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심장 박동기 등에 적용해 배터리 교체 재수술이 필요 없는 ‘평생 배터리’ 시대를 연다. 산업용으로는 오지 통신 기지나 교량 센서에 탑재되어 유지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에너지 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동위원소 독점이 향후 첨단 산업의 새로운 지정

학적 변수가 될 것으로 진단한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의 동위원소 수출 통제 여부와 3D 변환기의 양산 수율이 향후 관련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할 것”이라며 “단순히 이차전지 용량을 늘리는 경쟁을 넘어, 반도체 공정과 핵전지 기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전장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삼성과 LG는 왜 긴장해야 하는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기를 담는 그릇’이라면, 핵배터리는 ‘전기를 만드는 샘물’이다. 전기차처럼 큰 힘이 필요한 곳은 여전히 한국 기업들의 독무대였지만, 인공지능(AI) 센서나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처럼 ‘교체 불가능한 영역’에서는 러시아의 기술이 한국의 배터리 영토를 잠식할 수 있다.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방사성 동위원소 농축’이라는 원천 자원 안보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다. [글로벌 이코노믹]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21-3002-9087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유성 종합건설

PT. YUSUNG JAYA ABADI

기술로 짓고 신뢰로 완성합니다.

건설 기계 전기 배관
정수 및 폐수처리시설

유성열 대표 : 0812 8037 0303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Raya CurugPos Bitung15810
yusungjaya1@hotmail.com / 021 598 0222







‘지금, 왜 인도네시아를 선점해야 하는가’ ... 해답 알려주는 책 나왔다

이장희 코트라 아카데미 인도네시아 경제·경영 연구소장 펴낸
 ‘황금시장 인도네시아 슈퍼리치의 성공 수업’ ... 현지 비즈니스 시장 전망
 현지 시장의 이면과 트렌드 생생하게 분석한 심층 리포트

국부펀드·신태용·미래 유니콘까지, 한·인니 비즈니스 거인 40인의 ‘필승 전략’ 집대성

동남아 최대 경제 대국이자 세계 4위의 인구 대국. 중국을 대체할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 떠오르며 세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지금 이 나라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앞 다투어 진출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를 왜 지금, 선점해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책이 나왔다.

이장희 코트라 아카데미 인도네시아 경제·경영 연구소장이 최근 펴낸 ‘황금시장 인도네시아 슈퍼리치의 성공 수업’ (순정아이북스)이다.

저자는 인도네시아가 단순히 기획의 땅임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050년 미래 경제 4강’으로 예측한 인도네시아 시장의 복잡다단한 비즈니스 문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의 렌즈로 입체적으로 해부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베트남 이후의 대안을 찾는 한국 기업들에게 인도네시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장”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2000년대 10년 동안 한국 중소기업들은 주로 중국에서 기회를 찾았고, 2010년부터 10년간은 베트남이 관심 국가로 떠올랐고 그곳에서 희망을 찾았다고 전제한다. 이어 지금부터 향후 10년 동안은 인도네시아에서 기회를 잡는 흐름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저자는 “이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국내 시장은 물론, 기존에 진출했던 여러 국가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인도네시아

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며 “불안한 미래에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새로운 대안이자 탈출구다.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고, 한국 기업이 반드시 공략해야 할 필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도네시아의 상황과 시장의 변화를 운명으로 읽을 것을 주문한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경제의 중심지이자 아세안(ASEAN)의 핵심 국가이며 동남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거머쥔 넥스트 차이나라는 것이다.

이슬람 벨트의 중심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지금 잠에서 깨어나고 있고,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정책’을 통해 첨단 제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경제로 전환을 꿈꾸며 그 몸집을 키우고 있다고 알려준다.

인도네시아 경제 전문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인도네시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인 뉴 비즈니스 웨이 인도네시아(New Business Way Indonesia), 즉 ‘인도네시아와의 상생 비즈니스, 윈윈 전략’을 외친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인도네시아에 대해 낯설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저자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를 체계적으로 다룬 경제·경영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적지 않게 마주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이유는 인도네시아는 그만큼 크고 복합적인 나라이기 때



▲이장희 코트라 아카데미 인도네시아 경제·경영 연구소장이 펴낸 ‘황금시장 인도네시아 슈퍼리치의 성공 수업’ 표지.

문이라는 것. 인구 2억 8천만 명, 1만 7천개의 섬, 300여 개의 종족이 공존하고 있으며, 서쪽에서 동쪽까지의 길이는 약 5천100킬로미터로 서울에서 자카르타까지의 비행 시간과 맞먹는다. 지역마다 문화와 언어, 경제 환경도 크게 다르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를 가진 나라를 짧은 시간에 단순한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 몇 개의 숫자나 표면적인 정보만으로는 본질을 알기 어려운 나라라는 것이다.

이 책은 기존에 나온 인도네시아 관련 책들이 대체로 한 분야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경제는 경제만, 역사서는 역사만, 문화서는 문화만 다룬다. 이 방식으로는 인도네시아를 하나의 사회와 시장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저자는 판단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경제, 역사, 종교, 문화, 비즈니스를 유기적으로 연

결하는 통합적 시각으로 책을 기술했다.

이 책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도네시아 경제계를 움직이며, 빅마켓의 시장 변화를 리드하는 ‘레전드급 인도네시아 기업들과 리더들’의 성공 전략을 최초로 생생하게 소개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성공 확률을 높이는 가이드 라인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한·인니 비즈니스 국가대표 40인의 실전 ‘성공 로드맵’이 책의 독보적인 가치다. 저자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직접 만난 양국 리더 20명씩, 총 40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완성됐다.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의 성공 법칙을 찾기 위해 정책 결정권자부터 세계적 석학, 대기업 최고경영자, 예비 유니콘 창업가까지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현장을 움직이는 리더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정부, 학계, 비즈니스 분야에서 활약하는 양국의 주요 인사들을 직접 인터뷰해 인도네시아의 미래 전망과 시장 기회 그리고 도전 과제와 성공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인도네시아의 위대한 기업과 최고 자산가들이 알려주는 시크릿 비즈니스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경영학자, 맨손으로 대기업을 일군 기업가, 시대를 앞선 통찰을 가진 정부 관료, 창의적인 발상으로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젊은 창업가 등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뛰어난 리더들이 많다.

인도네시아에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낸 한국인들에게도 주목했다. 주재원으로 시작해 수조 원

대 매출을 달성한 사업가, 작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낸 스타트업 창업가, 현지의 문화와 경제를 이해하며 성공을 거둔 기업들. 인도네시아는 그들에게 기회의 문이었고, 무한한 도전을 제공하는 넓은 시장이었음을 증명해낸다.

특히 미래의 경제 강국, 인도네시아를 위한 경제 전문가들의 솔루션은 저자가 인도네시아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일하며 10여 년간 만나온 국가경제위원회 사무총장, CEO 사관학교로 명성이 높은 대학교 총장, 인도네시아 최고의 경제 단체인 상공회의소 회장, 투자부 및 중소기업부 핵심 인사들에게서 얻은 다양한 해답들을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 학위를 받았다. 코트라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글로벌 통상·무역, 외국인 투자 유치, 그리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힘써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근무를 거쳐 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무역관장으로 재직하며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전략적으로 조율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열린 주요 투자 유치 행사에서 강연자와 사회자로 활동했고, 세계은행(World Bank), 인도네시아 정부, 주요 대학 등에서 강연하며 국제 비즈니스와 투자 협력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한국·인도네시아 상생협력센터와 코트라 무역관장을 맡아 양국 기업의 협력과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현재는 코트라 아카데미 인도네시아 경제·경영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과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 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 관광부, 노동부, 할랄청, 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인니, 가사노동자 보호법 통과... 20년 논의 끝 결실



▲여성 가사도우미(PRT), 여성운동위원회(KAP) 등 여성들이 인력이주부 청사 앞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해결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을 펴달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5.3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의회가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며 20여 년에 걸친 입법 논의가 결실을 맺었다. 21일 자카르타글로브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DPR)은 21일 본회의에서 가사노동자 보호법안(PPRT)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처리는 여성 인권 신장을

상징하는 ‘까르띠니의 날(Kartini Day)’ 과 맞물려 이뤄졌다. 밥 하산 하원 입법위원장은 이번 법 제정을 “노동권 보호의 역사적 이정표” 로 평가하며, 여성 해방의 상징인 라덴 아쟁 까르띠니(RA Kartini)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법은 총 12장 3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법적 보호 없이 비공식 부문에 머물러 온 수백만 명의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 근로 조건, 권리 보호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 접근권 보장, 직업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인력 중개업체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노동자의 임금 공제는 금지된다.

수프리 다스코 아흐마드 하원 부의장은 사회보장 범위와 연금 제도 도입 가능성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령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금 보장에 국가 재정을 일부 투입하는 방안도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학대나 착취와 관련한 형사 처벌은 별도의 기존 법률로 다루지며, 이번 법안에는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독을 의무화하고, 지역사회 단위 기관의 참여를 통해 가사노동자에 대한 폭력 예방도 추진하도록 했다.

가사노동자 고용은 고용주가 직접 하거나 허가된 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친인척이나 종교·교육 활동과 관련된 비공식적 또는 가족 내 도움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법 제정은 정부와 의회 간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뤄졌으며, 입법 과정은 “건설적인 협의” 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는 가사노동자들이 착취와 학대, 법적 보호 부족,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자카르타글로브/자카르타경제신문]

인니, 말라카 해협 통행료 징수 검토... 싱가포르, 통행료 반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의 해상 물류 요충지 말라카해협 [구글맵]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법제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해상 교역로 가운데 하나인 말라카 해협(Strait of Malacca)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말라카해협 통행료 구상과 관련해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와 부합한다며, 인도네시아를 세계 무역의 주변국이 아닌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전날 자카르타에서 국영 인프라 금융기관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인도네시아는 변방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 무역과 에너지의 핵심 항로를 끼고 있지만, 말라카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은 별도의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말라카 해협 통행료를 거론하는 배경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안보·재정·주권·대체항로 전략이 얽힌 구조적 문제다. 그래서 현재 논의는 “통행료” 라기보다는 항행 안전·환경 부담금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말라카해협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이에 위치한 해협으로,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세계 무역의 핵심 해상로다. 이 해협은 호르무즈 해협, 수에즈운하, 파나마운하와 함께 세계 경제의 주요 해상 관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푸르바야 장관은 통행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경우 주변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말라카 해협 수역 가운데 가장 넓은 구간을 관할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최근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를 하나의 참고 사례로 언급했다.

다만 이 같은 구상은 싱가포르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의 통행은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되고 자유롭게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싱가포르 해양 주간 2026’ 에서 “통행권은 모두에게 보장돼 있다”며 “우리는 주변 해역을 폐쇄하거나 차단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동참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이 구상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연안국 간 합의 도출의 복잡성과 글로벌 해운업계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가진 자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방어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보다 공격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인쇄/출판 광개토 Kwanggaeto

인쇄

카다록 / 브로슈어 / 리플렛 / 신문 / 메뉴판
BOOK / 사용설명서 / 사보 / 회보 / 지명원
보고서 / 회사소개서 / 교재 / 각종 양식의
카렌다 / 명함 / 봉투 / 바인더 / 쿠폰 / 초대장
인박스 / 제품 패키지 /
스티커 / 라벨 / 행택 / 컴퓨터 커팅

021 3002 9087 021 3002 9091 / 9090
0858 9060 0962

PT. Indokon Multi Sarana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트론 솔루션 & 인테리어 시공
전문 기업

PT. Indokon Multi Sarana는 정밀한 기획, 프리미엄 자재, 그리고 전문적인 시공 기준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미적 가치, 높은 완성도를 갖춘 비주얼 및 공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선명한 디스플레이, 내구성 높은 시스템, 그리고 철저한 납기 준수를 실현합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업 단지, 오피스, 상업 공간, 공공 시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PT. Indokon Multi Sarana는 실내·실외 비디오트론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No.1 선도 기업으로, 인테리어 시공 전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www.indokonmultisarana.com
(+62)21-2263-2551
Jakarta, Indonesia

인니, 첫 멜라민 공장 착공... 6억 달러 투자로 산업 경쟁력 제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아이르랑가 하르따르프 장관(사진=경제조정부 홈페이지)

인도네시아가 화학 산업의 다운스트림 부문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동부자바 그레식 특별경제구역(KEK Gresik)에 국내 최초의 멜라민 생산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GEABH조인트테크놀로지(PT GEABH Joint Technology)가 추진하며, 내년 2분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프 경제조정장관은 8일 “이번 개발은 석유화학 등 전략 산업에서 부가가치 산업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프로젝트는 그레식경제특구의 더 광범위한 개발 계획의 일부이며, 예상 투자액은 약 6억 달러(약 10조2천억 루피아)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시설은 연간 최대 12만 톤 규모의 멜라민을 생산할 수 있는

통합 생산체계로 설계됐다. 초기 단계에서는 하루 기준 암모니아 800톤, 요소 1,500톤, 멜라민 200톤의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생산 공정은 천연가스를 원료로 암모니아를 생산한 뒤 이를 요소로 전환하고, 다시 질산암모늄 및 멜라민 등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으로 가공하는 구조다. 멜라민은 주로 단단하고 내구성이 높은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농업, 화학 및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지원은 물론 수출 확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5~2029년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과도 맞물려 있다. 해당 계획은 산업 다운스트림 강화와 특별경제구역 활성화를 핵심 성장 전략으

로 삼고 있다. 그레식 특별경제구역은 국가 우선 개발 구역 중 하나로, 산업화 촉진과 수출 확대, 지역 경제 성장에서 전략적 역할을 맡고 있다.

2025년 기준 특별경제구역 누적 투자액은 336조 루피아에 달하며, 24만9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 가운데 그레식 특별경제구역은 105조4천억 루피아를 투자받아 전체의 약 31%를 차지하며 약 4만6천 명을 고용하고 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2025년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9.07%를 차지하며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차원에서도 동부자바 제조업은 지역 경제의 약 3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레식 지역의 실업률은 지난 5년간 8%에서 5.47%로 감소했다.

에밀 엘레스띠안또 다르닥 동부자바 부지사는 “동부자바는 인도네시아 제조업 생산의 약 4분의 1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이같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멜라민 공장이 주요 화학 원료의 수입 대체를 넘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출 경쟁력 제고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그레식 특별경제구역은 정부의 인프라 지원과 정책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산업 확장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간개발지수(HDI) 역시 2021년 76.98에서 2025년 79.69로 상승하는 등 사회경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XLIM(엑슬림) x 호카, 협업 컬렉션 공개... 기능 위 쌓인 조형미



실험적인 실루엣으로 주목받는 브랜드 ‘XLIM(엑슬림)’과 글로벌 퍼포먼스 풋웨어 브랜드 ‘호카(HOKA)’가 만났다. 정식 발매를 하루 앞둔 4월 17일(오늘), 서울 한남동 엑슬림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이번 협업 컬렉션의 정체성을 미리 엿볼 수 있는 VIP 프리뷰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협업은 호카의 상징적인 트레일 러닝 모델인 ‘마파테 스피드 2(Mafate Speed 2)’를 기반으로 한다. 단순히 컬러를 바꾸는 협업을 넘어, 엑슬림 특유의 조형적 접근법을 통해 퍼포먼스 슈즈를 하나의 예술적 오브제로 재탄생시켰다.

시간의 흔적을 담다... 마모와 침식에서 얻은 영감

협업 제품들 ‘자연 속에서 시간이 지나며 쌓이는 변화의 흔적’이라는 테마를 명확히 제시한다. 마모와 침식, 변형을 거치며 드러나는 소재의 표면 질감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텍스처를 활용했으며,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구조가 어우러지는 지점을 디자인에 담았다.

특히 호카의 뛰어난 쿠셔닝과 접지력 등 기능적 설계는 유지하면서도, 엑슬림만의 절제된 컬러 팔레트를 입혀 도심과 아웃도어를 아우르는 세련된 균형감을 완성



한 것이 특징이다.

18일 블랙·블루 1차 발매...오는 5월, 2차 출시

가장 먼저 출시되는 제품은 블랙과 블루 컬러로 4월 18일 오전 11시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 오후 8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순차적으로 발매된다. 발매가는 269,000원이며 이번 1차 컬렉션은 온·오프라인 모두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만나볼 수 있다.

1차 발매 이후, 오는 5월 8일에는 그레이 폼과 피치 더스트 컬러가 2차로 출시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만난 브랜드 관계자는 “블랙과 그레이 같은 데일리한 컬러는 물론, 포인트가 되는 블루와 피치 컬러에 대한 방문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중고 봉제기계, 봉사 및 악세사리, 매입

PT. SHINHAN GLOBEL

SHIN H. G +62 8581 1369 4992
Kakao ID 6shg10



COSMO www.cosmofamily.com



GFRP WIREMESH



GFRP REBAR

더 가볍게, 더 강하게.
인도네시아 최초 SNI 인증 GFRP 보강근 제조사.
부식 없는 철근 대체 솔루션
Cosmo GFRP Indonesia.

Office : Menara Bidakara 1, 21st Floor, Unit 2152 & 2156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71-73 Kelurahan Menteng Dalam, Kecamatan Tebet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Factory : Kawasan Industri Suryacipta City of Industry, Jalan Surya Madya XIV, Kavling I-67A3, Kabupaten Karawang, Provinsi Jawa Barat 41362
Tel. : +62 811 9630 8805
Email : jaydentyp@cosmogfrp.co.id

나이키 밀리고 아디다스 살아났다... ‘670억달러’ 中 운동화 판 흔들[나우,어스]

안타·리닝 선두 유지에도 성장 둔화
나이키 중국 부진에 주가 3분의 1 하락
아디다스·호카 등 외국 브랜드 반격 본격화
피트니스·캐주얼 수요 확대에 시장 성장 지속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토종 브랜드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글로벌 브랜드들이 반격에 나서면서 ‘운동화 전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약 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성과 프리미엄 전략을 앞세운 서구 브랜드들이 틈새를 공략하며 점유율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장 1위는 안타 스포츠다. 리닝 등 주요 토종 브랜드들도 상위권을 형성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 다만 최근 성장 흐름을 보면 자국 브랜드만으로는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안타의 경우 일본과 한국 등 해외의 기능성 브랜드를 포함한 포트폴리오가 전체 성장의 상당 부분을 견인한 것으로 분



▲[안타 홈페이지]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을 둘러싸고 토종 브랜드와 글로벌 브랜드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게티이미지]

석된다. 반면 자체 브랜드 매출은 3%대 성장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둔화된 흐름을 보였다. 리닝 역시 연간 매출 증가율이 3%대에 머물렀다. 글로벌 브랜드 가운데서는 나이키의 부진이 두드러진다. 나이키는 중국 시장 판매 둔화 영향으로 올해 들어 주가가 약 3분의 1 하락했다. 한때 에어 조던과 에어 포스1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했지만, 최근에는 정치적 반발과 브랜드 영향력 약화, 제품 경쟁력 논란 등이 겹치며 입지가 약해

진 상황이다. 반면 아디다스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현지 디자인 제품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며 중국 소비자 취향에 맞춘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 상하이 디자인팀이 선보인 ‘설날 컬렉션’ 등이 주목을 받으며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기여했다.

틈새 시장에서는 기능성과 프리미엄을 내세운 브랜드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스위스 브랜드 온(On)은 중국 수요에 힘입어 아시아 매출이

거의 두 배 증가했다. 한 켤레 200달러 수준의 고가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위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데커스 아웃도어 산하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 역시 해외 시장 성장에 힘입어 최근 분기 매출이 19% 증가했다. 회사 측은 중국 사업이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외국 브랜드들이 다시

활동 중심의 피트니스 열풍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상복에서도 스포츠웨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정장 대신 편안한 복장을 선택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고용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으로 안정적인 직장이 줄어들면서, 전통적인 정장 수요가 감소하는 대신 운동화와 캐주얼 의류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이 더 이상 ‘국산 vs 외산’ 구도로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기능성,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선택이 이뤄지면서 경쟁 구도가 복합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데커스 아웃도어 산하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게티이미지]

기회를 엿보는 배경에는 중국 시장의 높은 성장성이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소비는 약 16% 증가해 전체 소매 판매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경기 둔화 속에서도 스포츠웨어 소비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소비 트렌드 변화도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야외

블룸버그는 “소규모 브랜드의 성장과 아디다스의 회복 사례는 외국 브랜드가 완전히 밀려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라며 “동시에 나이키의 부진은 브랜드 영향력만으로는 시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헤럴드 경제]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기계

TEL: +82-2-465-6308/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전상규 법인장: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승무원, 구두 대신 운동화... 대한항공 57년 '금기' 깨진다 '굽 있는 구두 신는다' 원칙 변경 추진 지난 2월 '안경 착용' 허용 이어 변화 바람



▲제주항공이 올해 2월부터 객실승무원 근무화로 도입한 '스니커즈(운동화)'를 객실승무원들이 신고 있다. 제주항공 측은 "장시간 기내 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고,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

대한항공이 창립 이래 57년간 이어온 '승무원은 굽 있는 구두를 신는다'는 원칙을 바꾸는 것을 추진한다. 승무원들이 더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게 스니커즈(운동화)를 신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확정될 경우 연말 통합되는 아시아나항공에도 적용된다. 승무원 수만 총 1만명 안팎인 1·2위 대형 항공사의 '신발 변화'가 업계 전반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노사 협의를 통해 승무원들이 기내 업무 시 운동화나 기능성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복

장 규정 개편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기내에서 3~5cm 굽의 구두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노사 협의를 통해 제도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공업계에서 승무원의 구두는 단순한 신발 그 이상이었다. 항공사들은 승무원의 용모와 복장을 브랜드 이미지 및 규율과 동일시해왔다. 2000년대 초반까지 바지 유니폼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구두는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다. 대한항공에서 승무원의 안경 착용이 허용된 게 불과 지난 2월의 일이다.

대한항공이 '금기'를 깨기한 데는 실무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장거리 노선 비행 시 10시간 이상 좁은 기내 복도를 오가야 하는 승무원들에게 구두는 만성 피로와 근골격계 질환의 주범으로 꼽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무원의 신체적 피로가 누적되면 결국 비상 상황에서 대응

역량 저하로 이어진다"며 "직원이 편안해야 기내 안전과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이 회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저비용 항공사(LCC) 등에서 변화가 시작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제주항공이 모든 객실 승무원에게 운동화를 지급하며 제도를 바꿨고, 에어케이항공은 지난 2020년 출범하며 운동화를 정식 근무화로 채택했다. 이스타항공도 검은색 계열로 통일성만 갖추면 구두를 안 신어도 된다고 했다. 작년 9월 출범한 파라타항공은 최근 기능성 신발 브랜드인 락포트 제품을 승무원들이 신도록 했다. 기내용 구두를 지급하는 아시아나항공도 작년 10월 승무원들이 취향에 맞는 신발을 고를 수 있게, 기능성 브랜드 바이네르까지 포함해 선택할 수 있는 구두 브랜드를 4종에서 7종으로 늘렸다. 해외에서도 '승무원의 하이힐'은 사라지는 추세다. 일본항공(JAL)은 지난해 승무원과 지상직 1만4000명에게 운동화를 허용했고, 중국 에어트래블은 하이힐 규정을 폐지하며 "플랫 슈즈가 비상시 탈출 등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고 천명했다. 항공업계 안팎에선 승무원의 복장과 용모에 대한 까다롭고 경직된 규정이 오랫동안 이슈가 돼왔다. 지금도 머리 길이나 액세서리 착용 관련 세세한 기준이 있다. 하지만 젊은 항공사 직원들이 늘고 신생 LCC 등도 생겨나면서 "기내 업무와 무관한 요소에 대해선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

세실리에 반센 x 아식스 협업 'GEL-QUANTUM 360 I' 출시 정보 단순하지만 화려한 디자인.



세실리에 반센이 아식스와의 협업을 이어가며 새로운 스니커를 출시한다. 이번 모델은 'GEL-QUANTUM 360 I'를 기반으로 한 재해석 버전이다. 기존 실루엣은 유지하면서도 구조를 단순화한 점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레이스업 대신 슬립온 형태의 메리 제인 구조를 적용해 착용 방식을 바꿨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보다 절제된 방향으로 정리됐다. 컬러는 블랙과 핑크 두 가지로 구성되며, 어퍼에는 플로럴 패턴이 더해졌다. 기

능성 중심의 아식스 구조 위에 세실리에 반센 특유의 디테일을 엮은 형태다. 해당 제품은 2026년 4월 18일 세실리에 반센 공식 채널을 통해 선출시되며, 이후 글로벌 발매가 이어질 예정이다. HYPEBEAST

뉴발란스 '카와이 5' 공개 농구화가 이렇게 귀여워도 되나요.



뉴발란스가 카와이 레너드의 시그니처 라인 최신작 '카와이 5'를 공개했다. 이번 모델은 그의 침착하고 계산된 플레이 스타일을 기반으로 설계된 퍼포먼스 농구화다. 어퍼에는 부드럽고 유연한 소재가 적용돼 안정적인 착용감을 제공하며, 발을 단단히 고정하는 구조가 더해졌다. 미드솔에는 반응성이 뛰어난 듀얼 밀도 퓨얼셀 쿠셔닝이 적용됐고, 빠른 첫 스텝을 보조하는 전방부 Y 플레이트 구조가 결합돼 폭발적인 움직임을 지원한다. 이번 출시에서 카와이 레너드는 캠페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로도 참여했다. 그는 비주얼 방향성과 스토리텔링 전반에 관여했으며, 그의 상징적인 '더 클로' 모티브 역시 캠페인 전반에 반영됐다. 스니커와 함께 퍼포먼스 어퍼럴 캡슐도 동시 공개된다. 가벼운 워밍업 재킷, 테이퍼드 쇼츠, 통기성을 고려한 트레이닝 티셔츠 등으로 구성된 온코트와 일상 모두를 아우르는 구성을 갖췄다. 뉴발란스 '카와이 5'는 2026년 여름 중 뉴발란스 공식 웹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HYPEBEAST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톱슨 목금형(톱슨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 생산성 향상
- 짧은제작기간
- 정밀성
- 품질 향상
-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빼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무신사, ‘신발은 역시 무신사’ 킥스 페스티벌

9일부터 10일간 나이키 · 아디다스 등 8개 베스트 브랜드 참여

무신사가 운영하는 신발 전문관 ‘무신사 킥스(KICKS)’가 상반기 최대 규모의 ‘킥스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오늘(9일) 오전 11시부터 열흘간 진행된다. 스니커즈는 물론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로퍼, 더비 슈즈 등 구두 카테고리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라인업을 갖췄다. 과거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출발한 무신사의 정체성을 살려, ‘신발은 역시 무신사’라는 카테고리 전문성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나이키, 살로몬, 아디다스, 푸마 등 글로벌 스니커즈 브랜드와 더불어 닥터마틴, 로맨틱무브, 아

세 등 프리미엄 구두 및 캐주얼 슈즈 브랜드를 중심으로 ‘브랜드 릴레이’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무신사 단독 상품 및 신규 라인업을 발매한다. 품질 대란을 일으켰던 인기 상품의 재입고 물량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카테고리별 고도화된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봄철 하객룩이나 출근룩에 매치하기 좋은 구두와 여름 시즌을 미리 준비하는 초여름 슈즈(Pre-Summer Shoes)부터 스니커즈, 러닝화 등 세분화된 테마별 ‘카테고리 데이’를 운영한다. 고객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캠페인 기간 내 최대 7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25%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무신사가 운영하는 신발 전문관 ‘무신사 킥스(KICKS)’가 상반기 최대 규모의 ‘킥스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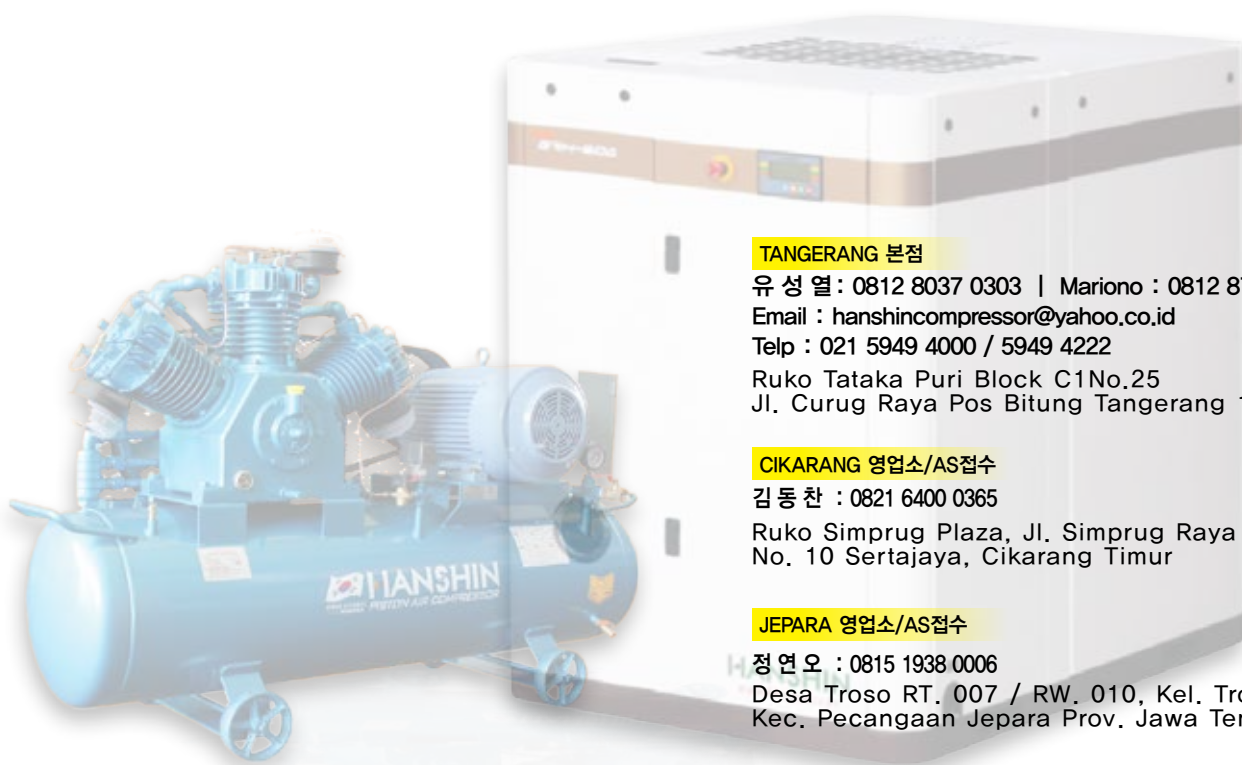
참여 브랜드의 매출 확대를 위한 라이브 커머스도 편성했다. 오늘 킥치를 시작으로 로맨틱무브, 닥터마틴, 컨버스, 야세, 뉴발란스, 크록스까지

총 7개 주요 브랜드가 무신사 라이브를 통해 릴레이 방송을 선보인다. 특히 라이브 방송 중에는 해당 시간대에만 유효한 단독 혜택과 스타일링 팁

을 제공해 실시간 구매 혜택을 강화했다. 오프라인 매장 방문 고객을 위한 연계 이벤트도 운영한다. 무신사 킥스 성수와 홍대를 포함한 무신사 스토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발 카테고리 구매 시 금액대별로 최대 1만 원의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 특히 무신사 킥스 성수와 홍대점에서는 18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의 무신사머니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혜택을 지원한다. 브랜드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참여형 콘텐츠도 풍성하다. 신발 관리에 특화된 가전인 ‘슈 에어드레서’와 봄철 러닝 트렌드를 겨냥한 스마트워치 ‘가민 포러너’ 등 신발 애호가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으로 구성된 래플(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